

# 미확인비행체

## UFO는 존재하는가

UFO 목격사례가 서울 상공에서만도 90년 이후 잇달아 14건에 이르러 미확인비행체의 관심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콘돈위원회는 18개월의 조사 끝에 “연구가치가 없다”고 결론냈고 대부분 인간의 착각에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세계 도처에서 목격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 상공서 14차례 목격

UFO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중반부터이다. 1946년 스칸디나비아반도에 나타나기 시작한 UFO가 1947년부터 미국에 출현해서 소동을 피운 것이다. 그후 1954년 프랑스와 1957년 이후 북미 전역에서 UFO가 목격됐다는 보고가 쏟아져 들어왔다. 1989년 구 소련과 1990년 벨기에를 중심으로 한 전유럽에서 UFO가 출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부터 54년 겨울까지 주로 미군 조종사와 지상레이더 요원들에 의해 첫 UFO가 목격된 후 서울 상공에서만도 90년 이후 14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많은 사례의 UFO에 대한 보고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여러 사람이 UFO를 목격한 최초의 사건은 1947년 남부 텍사스에서 일어났다. 밤 하늘에 돌연 불그스름한 둥그런 물체가 나타나 5분동안 나뭇가지와 전선 그리고 지붕 위를 배회하다가 감쪽같이 사라져간 것이다.

그로부터 5개월 후 미국 워싱턴주 레이너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던 케네스 이놀드는 9대의 이상한 비행물체를 발견했다. 이놀드의 목격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미 공군은 조사에 착수했고 UFO란 이름이 붙여졌다. 1947년만 해도 많은 미국인들은 UFO를 환각과 조작·비밀병기 또는 그밖의 가능한 자연현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공군의

항공기 관련부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당시 미국에서 항공기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항공군수사령부였다. 미국 항공군수사령부는 사건 초기 UFO에 대해 환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며 실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1948년 미 공군 안에 프로젝트 사인(Project Sign)이라는 UFO조사 전문기구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구가 설치되기 2주쯤 전 토머스 맨텔이라는 공군 대위가 켄터키주 공군기지 부근에 나타난 UFO를 쫓다가 사망했다. UFO 추격에 너무 몰두하다가 무산소 비행을 할 수 있는 고도를 넘은 것이다. 이 사건은 또한 AP통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됨으로써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 美선 전문조사기구 설치

미 항공군수사령부는 맨텔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로젝트 사인 참가자들은 UFO가 2차 세계대전중 독일에서 설계된 소련의 비밀무기일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미 공군 UFO조사기관은 프로젝트 사인을 1952년초 프로젝트 블루북(Project Blue Book)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팀에 대학 교수를 참가토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과학적 조사에 착수했다.

UFO의 목격담은 그 후 수없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다. 미 공군에 접수된 UFO목격담만도 1950년 2백10건, 51

요즘 우리나라에서 미확인비행체(UFO=Unidentified Flying Object)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모 TV가 UFO를 타고 온 것으로 믿어지는 외계인의 충격적인 신체해부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UFO에 대한 관심에 불을 당긴 것이다. 과연 UFO는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한다면 그 정체는 무엇일까.

년 1백69건에서 52년에 1천5백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중매체도 큰 관심을 보여 52년 하반기만 1만6천건에 달하는 UFO기사가 다뤄졌다. 이 기간동안 워싱턴 상공에서도 UFO가 여러 차례 목격됐다. 7월 10일 국립항공사 소속의 승무원은 워싱턴 남쪽의 콰티코 상공에서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

같은 달 13일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비행기 승무원이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96km 떨어진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UFO를 목격했다. 15일에는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 지상에서 UFO를 목격했다. 7월 19일 밤 11시 40분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워싱턴 국립공항의 관제센터에 설치된 2대의 레이더에 UFO가 포착됐다. 맨 처음 이 물체들은 시속 1백 50km 정도로 천천히 움직였는데 순식간에 레이더에서 모습이 사라졌다. 같은 시각 이 근처를 지나던 비행기 승무원들은 이상한 불빛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이 물체들은 감속과 가속을 반복하다가 급정지하여 멈추더니 감쪽같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 백악관상공서도 UFO 소동

이 목적은 레이더장치에서 감지된 것과 일치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20일 새벽에는 레이더 스크린을 주시하던 해리 반스가 방위 사령부에 요격기 출동을 요청했다. 이들은 워싱턴 상공에 접근해 항공운항관제센터의 유도를 받아 목표 물체에 접근했다. 그런데 요격기가 접근하자 UFO는 레이더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조종사들은 UFO를 볼 수조차 없었다.

워싱턴 상공에서 일어난 UFO소동은 「워싱턴 포스트」지가 연일 신문에 계속해서 『백악관 상공의 UFO』란 표제로

다뤘다. 이로 해서 미국 전역에 UFO 소동이 벌어졌다. 국무성의 모든 전화 회선이 UFO에 대한 질의로 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졌다.

미 공군은 이로 해서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합동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기자회견에는 공군정보부장 존 샴포드소장을 비롯해서 항공방위사령관 로저 래미소장, 항공기술정보센터의 기술분석팀장 도널드 바우어즈대령, 프로젝트 블루북 책임자 루펠트대위를 비롯해서 많은 민간 기술자와 레이더 전문가가 동석했다.

샴포드소장은 워싱턴 상공의 현상은 단순한 기온역전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UFO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FO의 연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천문 기상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국 국회가 들고 일어나 청문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청문회의 결론은 그동안 블루북이 수집한 UFO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헤롤드 브라운 공군장군은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학교수와 공동으로 UFO의 정체를 밝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미 공군은 1966년 10월 6일 콜로라도대학과 2년간 UFO연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FO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콜로라도대학 물리학 교수인 에드워드 콘돈 박사를 책임자로 하는 '콘돈위원회'가 설치됐다. 콘돈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아 18개월동안 조사했다.

1968년 1월 『UFO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최종 보고서(The Final Report

of the Scientific Study of Unidentified Flying Objects)』가 완성됐다. 1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이 보고서에서 콘돈교수는 "UFO는 더 이상 과학적 연구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1969년 12월 17일 미 공군은 UFO연구조사 종결을 선언했다. 국가 안보적 차원이나 과학적인 이득면에서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지속할 아무런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 대부분 인간의 착각서 유래

하지만 UFO는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 목격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UFO의 정체는 무엇인가. UFO조사팀은 대부분이 인간의 착각에서 오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고층 대기에서 발견됐다면 유성이나 궤도에 재진입하는 인공위성체·로켓분사·이온층실험기·고층관측기구·미사일 등이, 대기권이라면 기상관측기구·구름·비행기에 반사된 햇빛·비행기의 증기구름(雲)·광고용비행선·비누거품·각종 항공기·고무풍선·새·조명탄·낙하산 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목격되었다면 바람에 나는 종이·나뭇가지·연·곤충·씨앗·새털·전선의 조명등·TV안테나·레이더·건물에 비친 전등·탑등·네온사인·자동차의 헤드라이트·선박·굴뚝·연기·창문반사 등이 UFO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UFO도 적지 않다. 실제로 프로젝트 블루북은 20여년동안 총 1만2천6백18건의 UFO목격 사례를 수집했는데 이중 7백1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UFO는 계속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光>